

세계 식량 가격 반년째 하락...설탕 가격 0.8% ↑ '상승 전환'

FAO,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118.0p 기록...곡물·육류 가격 하락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 대비 1.0%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곡물과 육류 가격은 내려갔으나 유지류, 유제품과 설탕 가격은 상승했다. 3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0% 하락한 118.0포인트(p)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월(116.5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식량 가격 지

수는 지난해 7월(124.6p) 이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반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일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20.1p로 전월보다 2.2% 하락했다. 밀 가격은 수출국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남반구에서 최근 수확된 밀이 공급되면서 하락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 작황이 개선되고 미국산 옥수수 공급도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올랐다. 설탕 가격은 전월보다 0.8% 상승한 135.3p를 기록했다. 설탕 가격은 지난해 9월 162.7p까지 올랐다가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134.2p까지 내려갔지만 지난달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인도에서 생산 전망이 저조한 점이 설탕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에탄올 판매 수익 저하로 인한 브라질 내 설탕 공급량 증가, 미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약세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유지류는 전월보다 0.1% 상승한 122.5p로 집계됐다. 팜유는 주요국 생산 감소로, 해바라기씨유는 수입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대두유는 남미 지역 공급 확대, 유채씨유는 유럽에 충분한 물량이 남아 가격이 하락했다. 육류는 109.8p로 전월보다 1.4%p 가격이 내려갔다. 가금육은 국제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수출국에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 역시 중국에

서 생산이 늘어나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소고기는 오세아니아 및 남미 지역 국가들의 수출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갔다. 유제품은 전월보다 0.1% 상승한 118.9p를 보였다. 버터와 전지분유는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반대로 탈지분유 및 치즈는 수입 수여가 적어 가격이 내려갔다. FAO는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362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2%(3330만t)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3~2024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170만t으로 2022~2023년도 대비 1.2%(3450만t)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권기자

“설 차례상 비용 가락물·전통시장 21~23만원, 대형마트 26만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차례상 가격 조사 실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12%, 가락물 19% 저렴
과일·축산물물은 시장, 채소는 마트 구매가 유리

품목	구입단위	전통시장(A)	대형마트(B)	가락물(C)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A/B)	대형마트 대비 가락물(C/B)
사과	3개(약400g/개)	13,231	13,266	13,265	-0.3%	0.0%
배	3개(약700g/개)	14,942	16,898	17,500	-11.6%	3.6%
귤	5개(약300g)	5,501	7,099	5,500	-22.5%	-22.5%
대추	100g(약30개)	2,776	3,330	2,230	-16.6%	-33.0%
밤(생울)	500g(약25개)	6,263	5,655	7,350	10.7%	30.0%
살(생)고사리	300g	5,758	9,754	3,720	-41.0%	-61.9%
(간)도라지	300g	5,307	8,120	3,150	-34.6%	-61.2%
시금치	400g	3,391	3,418	3,250	-0.8%	-4.9%
부채조기(수입)	1미리	3,717	5,126	8,000	-27.5%	56.1%
동태살(어린용)	1미리	4,025	5,046	3,500	-20.2%	-30.6%
동태살(어른용)	500g	7,626	9,918	6,000	-21.1%	-39.5%
다시마	300g	8,133	10,299	4,500	-21.0%	-56.3%
복어	1포(60~80g)	6,087	6,091	4,167	-0.1%	-31.6%
쇠고기국산(국거리)	300g	16,438	24,923	15,500	-34.0%	-33.8%
쇠고기국산(산적용)	200g	9,836	11,856	8,500	-17.0%	-28.3%
돼지고기(안봉)	200g	2,456	3,153	2,400	-22.1%	-23.9%
돼지고기(배계)	1.2kg	8,011	10,225	5,000	-21.7%	-51.1%
달걀	10개	3,938	4,178	2,000	-5.7%	-52.1%
가래떡	1kg	7,417	9,685	4,345	-23.4%	-55.1%
쌀	1kg	5,256	8,239	3,800	-36.2%	-53.9%
(간)녹두	1kg	24,282	19,816	29,950	22.5%	51.1%
우	1개	1,881	1,298	1,800	45.0%	38.7%
알맹기떡주	300g	2,616	2,465	2,415	6.1%	-2.0%
대파	1단	3,723	3,570	5,000	4.3%	40.1%
호박(애호박)	3개	7,853	7,669	6,900	2.4%	-10.0%
밀가루	2.5kg	5,223	5,245	4,265	-0.4%	-18.7%
두부	700g	4,550	5,850	3,520	-22.2%	-39.0%
소면	900g	3,835	3,560	2,955	7.7%	-16.7%
부침가루	500g	2,753	2,624	2,080	4.9%	-20.1%
맛살(코지용)	500g	4,132	4,874	3,750	-15.2%	-23.1%
다식	1봉지	4,072	3,045	3,150	33.7%	3.4%
합갈산사	1봉지	5,731	6,484	3,525	-11.6%	-45.6%
연과	1봉지	4,470	4,663	3,650	-4.1%	-21.7%
청주	700ml	5,889	4,964	5,050	18.6%	1.7%
식혜	1.8L	4,289	3,799	3,960	12.9%	4.2%
2024년 설 차례상 비용(A)		225,604	256,200	206,657	-11.9%	-19.3%
2023년 설 차례상 비용(B)		218,320	266,172	203,971	-10.0%	-23.5%
전년 대비(A/B) 증감률		3.3%	-3.7%	1.5%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물 등 총 25곳 대상 농수축산물 가격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모니터단과 공사 가격조사 요원은 지난달 24일 용문시장,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등 전통시장과 이마트 등을 직접 찾아 물가를 점검했다.

이슬비기자



“또다시 가격 내렸다” 롯데마트, 한우 할인

롯데마트와 슈퍼는 전국 매장서 고품질 한우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오는 7일까지 '일반한우 정육 1등급 국거리·불고기용(100g)' 전 품목을 3490원에, '한우 1등급 등심 구이용(100g)'은 7990원에 판매한다. 더불어 채끝이나 안심, 부채살과 같은 '한우 1등급 구이용(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추가로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5일부터 맛과 품질을 모두 개선한, '신선을 새롭게' 한우 캠페인을 전 점 축산코너, 방송 매체를 활용해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 콘셉트는 '더 맛있는 한우에 100% 진심'으로, 롯데마트와 슈퍼가 고객에게 맛있는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한 모습들을 담았다. 한편, 롯데마트와 슈퍼는 직매 참여와 센터 자체 가공 작업으로 유통 단계를 절반가량 축소해 도축장에서 점포 입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시켜 신선도를 높이고 판매가를 낮췄다. 또 롯데마트와 슈퍼는 전 점포에 들어갈 한우 상품에 대해 자체 가공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항공업계, 기내 인터넷서비스 활기

외국 항공사들이 중심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도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진에어가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하늘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4곳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유료로 제공되는 기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B737-8 항공기가 투입되는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내 인터넷 서비스는 고도 1만 피트 도달 및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이후부터 운영된다.

2023년 대한항공 등이 하늘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2013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기내 인터넷 사용이 항공기 운항 시 교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후 외항사들은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루프트한자, KLM항공, 카타르항공 등 많은 외항사에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항공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로밍으로 통화 서비스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유료로 제공하는 기내 인터넷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등이 기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항공기에 위성 통신 서비스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위성 통신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할 때 무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일부 기종에 한해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은 확산될 수 있다"며 "국내 항공사들도 서비스 인터넷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정책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컬리, '설 상차림의 모든 것' 기획전 진행...최대 35% 할인

신선식품·간편식·나물 반찬 등 300여개 제품 마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팽팽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확산 등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9321건으로 전월 1만1619건 대비 19.8%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월(6332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2년 하반

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그해 10월 5114건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었다. 하지만 작년 초 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월에는 1만7401건으로 2만건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줄며 다시 1만건 아래로 떨어지며 대세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특례보증자리론 일변형 등 정부의 정책 상품 판매가 줄줄이 종료된 게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